

협회 전남도지회장 이취임식 개최

협회 전남도지회장 이취임식이 5월 3일(화) 전남낙협 나주공장에서 협회 임원 및 역대 전남도지회장, 전남도청 관계자를 비롯, 160여명의 낙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협회 김태섭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낙농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활동에 있어 전남도지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협회가 낙농현안 해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8대 전남도지회장으로 취임한 김안석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이야말로 한지붕 세가족을 한지붕 한가족으로 뭉치는 마지막 기회' 라면서 농가들마다 원유기현실화가 절실한 가운데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활동 전개와 낙농제도 개혁이란 당면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낙농가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년여간 전남도지회를 이끌어 온 김용철 전임지회장(제7대) 역시 이임사에서 "전국 낙농가들의 숙원인 낙농제도개편을 통해 서로 화합하여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가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 행사에는 협회 김태섭 부회장이 지역 회원농가들의 단합을 통해 협회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낙농육우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용철 前지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